

커진 핸드백과 책읽기

김후란

시인 · 국제펜클럽한국본부 부회장

유행은 세태를 반영한다. 한때의 유행이 도도한 물결처럼 사회 분위기를 휩쓸어 갈 때도 있고 극히 미세한 부분에까지 유행이 작용하여 신경 쓰이게도 한다.

나의 경우는 유행에 둔감한 편이다. 오히려 그런 물결을 피해 가거나 반대쪽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뉴패션 감각의 소유자들이 보면 우스울 것이다. 그래도 나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다. 예컨대 대다수 여성이 귀걸이로 모양을 내지만 나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도 갖지 않을 것이다. 흔해진 밉크코트 역시 나와는 취향이 다르다.

어떤 이들은 유행에 뒤떨어지면 시대 흐름에 동조하지 못한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열심히 따르게 된다고 한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바람직하지 못한 유행이라면 무시해 버리면 되겠고 취향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독창성이나 개성을 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널리 번졌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유행도 있다. 근래 여성들의 핸드백이 커진 것은 매우 시사적이라 여겨진다. 큼직한 솔더백을 어깨부터 늘어뜨려 메고 다니는 것인데,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 꼭 들어 있어야 할 것이 있다. 책이다.

전철에 탄 여성이 백에서 책을 꺼내 읽으며 가는 모습은 아름답다. 차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도 책을 펴두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외국인 남녀들이었다.

우리도 책 읽는 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었으면 한다. 나의 책읽기는 평생 생활의 일부로서 자리매김을 해왔기 때문에 시간만 허락되면 언제 어디서건 책을 펴든다.

어린 아기를 키울 때도 그랬다. 수유시간에 아기를 품에 안고 들여다보는 행복감에 취했다가도 한없이 흘러 보내는 시간이 아까워서 아기를 안은 채 한손으로 책을 펴두고 읽었다. 아기를 업고도 읽고, 누워서 토닥토닥 잠재울 때도 책을 읽었다. 마음에 드는 책, 계속 읽을 책이 있는 동안은 마음이 뿌듯하였다.

마야흐로 다양한 첨단과학시대에 영상을 통한 독서가 가능한 컴퓨터 시대다. 현대 정보양식은 통신정보 · 화상정보 · 활자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런 발전에 따라 책이 언제까지 독서의 주역으로 존립하겠는가 의문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책을 펴두고 읽는 재미는 결코 다른 정보 매체에 비길 바가 아니기에 책은 오래오래 사랑받을 것이다.

물 흘러가듯이 움직이는 화상정보는 그 자체로서 빠른 흡입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활자매체가 주는 안정감은 없다. 또한 집중력 · 창의력 · 사고력 · 상상력 촉발 등 부수되는 효과는 아무래도 손으로 감촉되고 눈으로 거듭 읽으면서 즐길 수 있는 활자매체의 책이 압도적이라 할 것이다.

독서, 즉 책을 펴서 읽는 문화적 행위야말로 차분히 저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고 읽으면서 음미하는 집중과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근래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도 읽을거리가 풍부한 교양차원의 홍보지를 정기발행하면서 공공기관 휴게실에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나는 외출할 때면 두꺼운 책보다 알뜰하나 읽을 게 있는 그런 홍보지를 핸드백 속에 넣고 다닌다. 또한 무거워도 큼직한 핸드백에 책 한권 넣고 다니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전철 등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큼직한 솔더백이 유행인 시대에 책읽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서 문화풍토를 선도하고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 ❖

초점	2	'황금알' 둘러싸고 작가·출판사 갈등 '2차 저작권' 문제 대립 ... 출판권·저작권 인식강화의 계기돼야
특별 기획	4	'좌우' 타협 속에 '조선출협' 출범 '출협' 탄생 전후의 출판계 (1945-1948) ②
출판인 칼럼	5	신명나는 책잔치 한마당이 되길 - 나춘호
특집/한국 출판의 세계화	6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책, 우리 문화
	8	우리책 수출의 머나먼 길
	9	세계 곳곳에 싹 틔우는 우리 출판
	10	인터넷 '한국학' 책, 이제야 걸음마 - 정태영
기획 취재	12	흙 없는 '정본' 이 튼실한 출판 이룬다
출판 포커스	13	출판은 천박한 문화의 방패 - 이중환
집중취재	14	"공공 언 겨울 출판시장 언제 해동되나" - 최태원
문학시론	15	신인작가들의 장편소설 발간 활발 - 한원균
이 책을 말한다	16	신호열·임형택 옮김 《역주 백호전집》 - 박석무
신간읽기	17	권영필 지음 《실크로드 미술》
출판 시평	18	그칠 줄 모르는 '삼국지' 열풍 - 임순환
출판 화제	19	'책벌레'를 꼬드기는 달콤한 유혹
연재기획	20	'아침으로 가는 길' 일러준 이정표 책과 떠나는 시간여행 ③ 80년대 대학신입생 교양서
나의 학문과 책읽기	22	내 삶의 역사와 함께한 책들 - 김재은
책이 있는 풍경	24	연극 외길 걸어온 손진책 · 김성녀씨 부부의 서거
서평	26	나병철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 이훈 허세욱 《중국근대문학사》 - 이기면 이용숙 외 《프랑스소설 속의 여인들을 찾아서》 - 김경숙 한정식 《사진예술개론》 - 안규철 펜로즈 《황제의 새마음》 - 조환규
확대 서평	29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한국과 일본》 - 함동주
이 책 그 사람	30	《미륵》 펴낸 힐트만씨 《문경의 명산》 펴낸 김규천씨 《워킹 뉴요커》 펴낸 나은경씨 《옛살림 옛문화이야기》 펴낸 김용태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책의 문화유산 ⑤